

지역 소식통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방안 회의

고창군이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기구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인 박우정 군수를 포함해 사회복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민간공동위원장 선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김종규 위원, 부위원장은 양현태위원이 선출됐다.

김종규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사책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회복시켜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홍보활동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실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승차 하는 과정에서 안전만 확인하면 되었지만,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의무가 추가 된 것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신설되었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정읍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민간주도 깨끗한 마을가꾸기 나서

부안군, 민들레 행복홀씨 선양사업 60개 단체와 협약 체결

부안군 민간주도의 민들레 행복홀씨 선양사업 협약 체결이 지난 26일 부안군 내 32개 단체(2개업체, 30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제차 협약 단체와 함께 총 60개 단체가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

협약단체들은 지금까지 총 90회에 걸쳐 쓰레기 12톤 수거 등 매월 정기적으로 행복홀씨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부레 민들레 행복홀씨" SNS밴드 등을 운영하여 단체별로 인터넷 봉사활동 공유와 선플 댓글 기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들레 행복홀씨는 지난 26일 2차 협약식은 2016년~2017년 총 60개 단체가 함께 민들레 행복홀씨 결의대회까지 하고 (주)참프레, 부안군생황개사회 등 32개 기관·단체는 일정구간에 대해 2년 간 자율적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게 되어 보통 2km 구간 이상을 자율적 청결관리를 하고 60개 단체에 의해 총 100km가 넘는 구간이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이 행복홀씨 선양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 활동으로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연식 군 친 환경축산과장은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정화는 주민 스스로 자라나는 자율적 의식이 필요하며 이번 2차 협약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행복홀씨 선양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도시재생대학 3단계 디자인 과정 개강

전문교육 통해 시민들 직접 거리 디자인 대한 방향 제시

샘골시장 상인 교육장에서 도시재생대학 3단계 디자인과정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는 새마을 번영회와 우암대평회 상화차거리 상인회 등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 사업자구인 원도심 주요 상인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을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즉,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거리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만들기 ▲7가지 성공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이해 ▲고객을 사로잡는 스토어 운영 ▲함께 일하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등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매력 넘치는 도시의 거리 디자인 ▲매력적인 상업 기본 및 실시계획을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윤리 도시재생 선진도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간담회와 벤치마킹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청안 300거리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도시재생대학 1~2단계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주거에서부터 상업, 업무 등이 복합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도심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침수피해 예방 주력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정읍시 태인면 낙안리 원낙안마을(이장 장경자) 방문에 주민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물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물관리 등에 따른 수초제거 및 토사 준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각 분야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농업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1만31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적재·적기·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9개소

저수지 담수량을 조절하고, 배수장을 적기에 가동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정동환지사는 "태풍 등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전 직원들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물 관리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 고객서비스는 물론 안전영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나들가게 지원사업 대상 점포 선정

7억6000만원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 투입 키로

정읍시가 2017년 나들가게 선도 지역 지원사업(이하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관련해 시는 올해 2월 중소기업청(현재 중소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나들가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국비 5억6000만원에 시비 2억을 더한 총사업비 7억6000만원을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설 현대화와 사업 컨설팅, 점주 역량 강화교육 등 시설건조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나들가게의 쇼핑 환경을 대형 할인 마트나 편의점에 뒤지지 않도록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점포는 사업 1차년도인 올해 사업 지원 대상이다. 시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희망 점포 신청을 받고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과 전담 관리자들이 현장평가를 가진 바 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당일 나들가게 지원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올해 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3억3000만원이고 이는 각 점포의 특화코너 설치와 시설 현대화, 안전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시는 앞으로도 나들가게 공동세일전과 신규 나들가게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축산농가 '원형벗짚 절단기'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인 한우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순수국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에 원형벗짚 절단기 14대를 지원하고 있다.

'원형벗짚 절단기'는 트랙터의 자체 유압을 이용해 타이머 방식의 유압장치로 작작, 절단하는 기계로 벗짚 사일리지의 이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조사료 생산이 기계화됨에 따라 400kg급의 벗짚 콘포사일리지가 만들어지면서 벗짚 급여 시에 이동이 어렵고 수작업에 의한 비닐(랩)제거가 다소 좋은 크기로 자동 세절에 급여함으로써 사료 손실을 막고 가축들의 사료 섭취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벗짚활용이 높아지면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벗짚 사일리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원형벗짚 절단기 사업에 농가들도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가속화해 생산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못 쓰게 된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물 관리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 고객서비스는 물론 안전영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상수거 대상품목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런닝머신 등 대형 품목 전지레인지·냉온정수기·PC세트 등 소형 가전제품까지 가능하다.

군은 이장회의와 언론 매체 및 홍보 전단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군민들의 폐가전제품 배출 불편해소와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